

정문경의 “알 수 없는 여정”

-Tear Yourself Away-

2008, 9, 19

강구원(화가, 계간버질주간)

정문경은 오랫동안 그리고 지우기의 반복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드러난 꺾적의 집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왔다. 행위의 과정과 결과물을 자유의지에 맡긴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캔버스라는 공간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보이는 것은 역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즉흥적이며 감성적으로 드러난다. 즉 자유를 내가 하고픈 대로 누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억제와 규범 안에서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구속당해짐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은 종이, 천, 마대, 노끈 등을 붙여 칠하는 콜라주(Collage)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언뜻보면 매우 구성적인 분할과 엄격함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재료들의 붙임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공간 안에서 적절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며 밀고 당김 속에서 어울림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문경 자신이 토로했듯이 미국에서의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과의 갈등과 압박을 벗어나려는 지우기에서 이제는 붙여 통합하고 화해하는 의미의 조화를 갈구한다. 그러기에 화면은 전보다 훨씬 강렬하고 즉각적이며 자신감에 차 있다. 이는 작품 “A Desired Diversion”이나 “Missing Part”에 잘 나타난다. 캔버스의 뒷면과 액자 틀까지를 활용한 이 작품들은 이미 작가 자신이 그동안 줄곧 표현해온 정형화된 공간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있으며, 그리기와 지우기, 붙이고 떨어냄이 하나의 세계임을 이미 간파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Journey to the unknown: energy”와 “Journey to the unknown: Space”는 칼라를 배재하고 무채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유의 확산과 응집력을 더욱 배가 시켰다. 이는 그동안 먼 이국에서의 삶이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의 시간으로 통고하며 그리워하는 인간 본연의 고독에서 걸러진 심상의 결정이기에 단아한 울림으로 들려온다. 검정 바탕에 희끗 희끗 드러나는 올 뚫린 마대천은 그러한 변민의 시간을 흔적으로 남기고 있으며, 침묵에서 들어 올린 현재의 나를 읽어 내려는 작가적인 깊이를 엿볼 수 있다. “Sue and Tom” “Belong to Yourself”는 그리고 지우고, 붙이는 과정 즉 살아온 작가 자신의 삶을 회화의 원리인 점, 선, 면, 색채와 소통의 핵인 문자를 통해 통합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과학과 정보의 물결 속에 혼돈하고 좌절하며 피폐해가는 현대인들의 감성과 정애의 부재를 작품 “White Light” “Symphony In Red”에서 어머니의 대지로서 품어보려는, 그래서 생명의 움트임을 통한 우리들 삶에 생기를 불어 넣으려는 열정과 소망으로 정리된다. 그 생기는 정문경 자신이 작가노트에 쓴 [알 수 없는 세계로 가고자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리라 확신한다.

Caption

1. Journey to the unknown: energy, 20"× 36"
2. White Light, 21.5"× 31"
3. A Desired Diversion, 16"× 20"
4. Missing Part, 16"× 20"
5. Belong to Yourself, 15"× 27"
6. Journey to the unknown: Space, 20"× 36"
7. Symphony In Red, 69"× 39"
8. Sue and Tom, Mixed Media, 2004